



## 1차시 디지털 미디어와 친구 되기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익명성, 전파성, 정보의 지속성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Q1

디지털 미디어에서 활동할 때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 속의 내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이러한 특성은 무엇인가요?

### A1 익명성

설명 : 온라인 환경에서는 보통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으로 활동하게 되어 현실의 나와 온라인의 나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 Q2

유튜브에서 한 학생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누구인지 모를 테니 그 학생에게 욕설 댓글을 달아도 괜찮을까요?

### A2 X

설명 :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를테니 잡히지 않을 것이라서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 Q3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틱톡 등에서 활동하면서 내 활동이 온라인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내용이 나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기록으로 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A3 디지털 발자국

설명 :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인터넷 세계에서 내가 내 정보를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인터넷 사용기록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경우, 나의 검색 기록을 사용하여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주곤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검색기록이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흔적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합니다.